

# 종교개혁가들의 성경관

지도교수 최 덕 성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199    년    월    일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 학 과

배 기 만

1993학년도

# 배기만의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인  
인  
인

199    년    월    일

# 목 차

## 서 론

1. 문제제기 및 논지진술 ..... 1

## 본 론

1. '성경'에 대한 역사적 관점들 ..... 4
  - 1 - 1. 교부시대 ..... 4
  - 1 - 2. 로마교 전통 ..... 5
  - 1 - 3. 종교개혁시대 ..... 5
  - 1 - 4. 현대교회 ..... 6
2. '성경'에 대한 신학적 의미 ..... 8
  - 2 - 1.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 ..... 8
  - 2 - 2. 성경에 대한 여러 해석학적 접근 ..... 9
3. 루터와 칼빈 이전의 '성경관' ..... 11
  - 3 - 1. 존 위클리프 ..... 11
  - 3 - 2. 존 후스 ..... 14
  - 3 - 3. 알도파 ..... 16
  - 3 - 4. 사보나롤라 ..... 18
  - 3 - 5. 신비주의 ..... 19
  - 3 - 6. 프링글리 ..... 20

4. 루터 .....	24
4 - 1. 루터 신학의 출발점 .....	24
4 - 2. 95개 신조와 워스국회 .....	25
4 - 3. 루터의 성경관 .....	25
5. 칼빈의 '성경관' .....	27
5 - 1. 성경에 대한 그의 주된 관심사 .....	27
5 - 2. 성경의 권위 .....	29
6. 칼빈과 루터의 유사점과 차이점 .....	31
7. SCRIPTURA - SOLA .....	32
7 - 1. 자유주의의 위험 .....	32
7 - 2. 신정통주의의 위험 .....	33
7 - 3. 근본주의적 경향 .....	34
7 - 4. 개혁주의적 입장 .....	35
8. 교회를 향한 루터와 칼빈의 메시지.....	36
<b>결    론</b> .....	40

# 서론

## 1. 문제제기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이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시대를 말한다면 무엇보다도 종교개혁기를 들 수 있다. 중세 천년의 암흑기를 종식하는 즈음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종교개혁가들은 당시의 암울한 현실과 사회전반에 걸쳐 부패한 제도와 사상을 쇄신하고 개혁하기 위한 사상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면 이와같은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단순히 어느 한 개인의 idea 였던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를 거쳐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표준이요, 제도의 원형이었던 성경이었다. 종교개혁을 있게 했던 원동력은 성경이었다. 교황이 통로가 되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수 있으며, 오직 성경만이 최종 판결자요 권위자인 것을 알게했다.

이런 성경의 권위의 근거는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헤르만 바빙크는 성경의 권위를 독자성(*αυτοπιστοσ*)에 두었다. 인간이 성경을 이해 하든지 못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sup>1)</sup> 칼빈도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성경은 *αυτοπιστοσ* 이어서 증명이나 논증에 이를 맡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된 우리들은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산출된 것으로 믿는 것은 인간의 판단을 초월하여 우리들은 인간의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부여된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sup>2)</sup> 결국

1) 최 훈, 「성경의 권위」 (서울:성광문화사, 1977), 20 재인용.

2) J. Calvin, *Inst*, I. 7. 5.

인간의 판단 여하를 떠나서 성경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바빙크 이전에 성경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내적조명'을 강조한 루터와 칼빈이 이것을 간파했던 것이다.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개혁을 출발시켰기 때문에 로마교제도와 인본주의로 감춰져있던 성경을 다시 들어내었고, 비로소 그것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눈이 다시 밝음을 맛보게 되었으며, 계시된 말씀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재발견하였다. 또한 그 거울로 인하여 참된 인간의 가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부패한 죄인인 것, 거기에는 교황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개혁가들은 계시된 성경과 함께 성령의 빛으로 죄인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통로(Sola Fide)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것은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Sola Gratia)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가서,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한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개혁가들은 성경 이외의 일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만 있으면 된다' 라는 식의 '성경주의'(Biblicism)를 표방하지도 않았다. 성경은 절대적 규범이지만 동시에 성령의 산물이기에 읽는 독자로 하여금 다양한 감동을 주기도 한다고 믿었다. 성경이 문자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기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보다 중요한 것은 문자를 통한 의미인 것으로 보았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문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문자나 문서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매개체일 뿐이라고 믿었다. 중요한 것은 문자나 문서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것을 읽는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성령의 조명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의미로 성경 유일의 권위를 주장하였다.

칼빈을 포함한 종교 개혁가들의 개혁의지는 '성경만으로'(SCRIPTURA - SOLA)가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SOLA - SCRIPTURA)이었다. 이것은 부패한 로마교 제도와 그것의 표상이었던 교황의 부당한 권위에 대한 반발이었고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

위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본 논문은 이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근본주의자들이 지니고 있는 “성경만으로” (*Scriptura-Sola*) 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가들의 “오직 성경으로” (*Sola-Scriptura*) 가 ‘성경만으로’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비교적 용해 (*Comparative Use*) 로 사용하고자 한다.

# 본 론

본 장에서는 교회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져 왔는가를 먼저 살핀다음, 종교 개혁가들의 개혁의지의 원동력이었던 그들의 성경관을 간략하게 살피고자 한다. 본인은 그중에서도 종교개혁의 '핵심인물'이며 또한 성경관에서 남다른 신학적인 업적을 남긴 루터와 칼빈의 성경관을 중심으로 본 논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 1. '성경'에 대한 역사적 관점들

### 1 - 1. 교부시대

초기의 교부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확실한 개념은 갖지를 못했다. 교부인 저스틴과 아테나고라스는 성경기자들이 신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수동적 이었다고 생각했으며, 성경기자들을 연주가의 손에있는 수금과 비교하였다. 클레멘트와 터틀리안은 구약과 신약 둘 다 똑같이 성령의 영감이 되었으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유대인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성경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을 건방진 일로 간주하였다. 또한 어거스틴은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구술하신 것을 받아적었다고 말하였다. 이외에 크리소스톰과 그레고리 1세 등도 성령을 성경의 참된 저자로 보았는데, 이와같이 교부들은 초기에서 후기교부로 감에 따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확실한 개념을 잡아가게 되었다.<sup>3)</sup>

3) Louis Berkhof,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151.



## 1 - 2 . 로마교 전통

로마교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라고 스스로 주장하여 왔는데 그 근거는, 즉 그들이 말하는 '말씀'이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이다.<sup>4)</sup> 그들은 이 말씀을 기초로하여 베드로와 같은 사도적 권위를 이어받은 사제제도와 '교황'의 절대권을 발전시켰으며 교황이 지상의 대리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sup>5)</sup> 또한 성경까지도 판단해석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로마교에서는 성경외에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도적 전승의 개념이 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점차 널리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사도적 전승이 성경의 권위를 확립하고 성경의 바른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의 발전은 성경의 가치와 정경으로서의 성경권위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되었다. 또한 이것은 로마교가 성경의 가치를 교회나 혹은 교황이나 혹은 사도적 전승에 의존하기 때문인데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의 총족성, 필요성, 명확성 등을 부정하는 입장에까지 서게 된 것이었다.<sup>6)</sup>

## 1 - 3 . 종교개혁 시대

4) 마태복음 16:18.

5) 이레네우스의 「사도적 신앙의 계승」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레네우스는 자신이 바로 사도의 뒤를 이은 감독임을 주장한다.

6) *Louis Berkhof*,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151.

종교 개혁자들은 근본적으로 로마교와 입장을 달리하였다. 그들은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고 참된 권위로 인정하였다. 그들은 로마교의 소위 사도적 전승을 배격하고 성경만을 믿음의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권위요 절대규범으로 인정하였다. 그들은 성경이 교회의 증거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대담하게 성경의 자증을 선언하였고 그러므로 증명이나 논리에 종속될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sup>7)</sup> 특히 칼빈은 이것을 '하늘의 계시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다.<sup>8)</sup> 이에 대하여 루이스 벌코프는 그의 책, 벌코프 조직신학 (서론 - '계시')에서

“ 비록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계시와 성경을 개혁자들이 구분하였으며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자주 주장하고, 또 오늘날 위기의 신학의 대표자들이 약간 다른 방법으로 이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볼 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다. 개혁자들은 성경을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 그들의 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의 작품에 근거해 볼때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과 동일시 했음이 분명한 것이다. ”<sup>9)</sup>

라고 밝히고 있다.

#### 1 - 4 . 현대 교회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르 끌레(*Le Clerc*, 1657-1736) 등의 성경 비평적 입장을 취

7) *Inst.* I. 7. 1 - 5. ( 여기에서의 *Inst.*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영어 약자로서 다음에 나오는 용어부터는 '*Inst.*'로 표기하겠음.)

8) *Inst.* I. 7. 5.

9) *Louis Berkhof*, 151-152.

하는 자들의 영향으로 성경의 무오성에 공격을 받게되었고 기록상 오류가 있다고 비평주의자들은 주장하게 되었다. 또한 어떤 자들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정도의 오류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변형을 허용하는 이론들이 생겨나게 되어서 부분적 영감론 등이 생겨나게 되었다.<sup>10)</sup> 그중에서 특히 슐라이에르마허 (Schleiermacher)의 등장으로 성경의 권위를 크게 손상시키게 되었다. 그는 부분 영감설과는 달리 성경에서 초자연적이거나, 이적적인 요소를 배제시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정하고, 성령의 초자연적 사역으로서의 성경의 가치를 인간적인 산물로 변형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주장은,

“ 자연적인, 그리고 기껏해야 은혜로운 하나님의 작용으로서 인간의 합리적인 또는 영적인 의식을 조명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자신의 기독교적 이해와 감정들의 충만함으로부터 자기자신의 종교적 삶과 신념을 말하고 쓰도록 한 것 ”

이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고 있다.<sup>11)</sup>

또한 슐라이에르마허 이후 벅사이드와 파커 등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자연적인 영감이 있다’ 고 주장하며 또한 바르트(K. Barth)와 부룬너(E. Brunner) 역시 성경이 성령으로 영감된 교리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sup>12)</sup> 이와같이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양한 철학적 과학적 연구와 비평적 연구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보편적인 사고를 위태롭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성경의 가치와 영감교리까지 위태롭게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급기야는 슐라이에르마허 이후 나타난 자유주의 신학의 발전으로 ‘성경을 신적계시에 대한 인간적인 기록으로 간주하게 되었다’.<sup>13)</sup> 그래서 독일의 관념론 철학과 슐라이에르마허의 주관주의의 영향으로 계시와 영감의 개념을 이중분리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계시와 인간의 발견물을 같은 것으로 간

10) *Ibid*, 156-157. ‘성경의 일부분만 영감되었다’는 것은 부분적 영감론의 주장이다.

11) 벨코프는 ‘배너만의 말로 표현해 보면’이라고 말하고 있다. *Louis Berkhof*, 156 - 157 재인용.

12) *Ibid*, 157.

13) *Ibid*, 152.

주하게 되었다.

이같은 철학적, 인본주의적 사고로 인하여 현대교회에 점점 자유주의 신학이 활개를 치게 되었고 이 성경비평적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볼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계시를 증거한다는 이유로서 '제2차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 2. '성경'에 대한 신학적 의미

### 2 - 1 .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

바르트(K. Barth)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행동속에서 인간에게 오실 때에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수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길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체시며 결코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시는 언제나 순수하고 주체적인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같이 결코 객관적인 어떤 것으로는 변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서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일찌기, 계시의 본질은 인간이성에 의해서 자연의 연구로부터 얻어질수 있다면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며 자연으로부터나 인간의 독자적 이성에 의해서 파악될수 없을때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중세시대에는 이성과 계시를 대조하는 사고가 일반적이었다. 개혁 신학에서는 자연계시는 종종 사실계시 ( *Revelatio realis* )로, 초자연 계시는 말씀 계시 ( *Revelatio verbalis* )로 불렸는데 그것은 전자는 사물들속에서 나타나며 후자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에발트(Ewald)는 「계시:그 본질과 기록 (Revelation:its Nature and Record)」에

서 직접적인 계시로서 자연에서의 계시와 간접적인 계시로서의 충만한 의미에서의 '계시'라는 이름을 지닐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경'안에서의 계시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일반적인 구별은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의 구별이다.<sup>14)</sup>

종교개혁자들은 스콜라 철학자들의 이원론을 거부했으며 하나님의 이중적인 계시의 종합을 목표로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이 순수하고 단순한 자연계시의 근거 위에 학문적인 신학체계를 성립시킬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바르트는 자연속에서 어떤 계시도 인정하지 않았다. 계시는 언제나 수직적으로 위로부터 온다. 계시는 항상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며, 인간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계시에 관한 어떤 것을 알수 있다고 한다.<sup>15)</sup>

그러나 자연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자연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파괴된 자연에서 가져오는 잘못된 인상을 고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두가지 계시를 주셨으나 결국은 성경이 신자의 인생관 전체의 궁극적 기초가 된다. 따라서 칼빈의 견해와 같이 반드시 성경의 안경을 쓰고 자연을 보아야 할 것이다.

## 2 - 2. 성경에 대한 여러 해석학적 접근.

19세기에 들어와서 성경해석의 입장은 소위 '역사적 예수 연구'와 함께, 다양한 비평적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그들의 작업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업적은 케리그마적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비신화화의 작업을 통하여 비로소 역사적인 예수로 등장시키려는 것이다. 심지어 심리학적인 예수해석으로 '철저 종말론'을 발전시

14) *Ibid*, 226-227.

15) *Ibid*, 229.

키게 되었다. 슈바이처는 사람이 복음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예수의 종말론이 그의 생애전반에 깔려있는 원동력으로서 그것이 자연히 종말론적인 메시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 예수는 나면서 부터 계속 그의 종말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16)</sup>

19세기와 20세기에 활동하였던 하르낙(Adolf Harnack)은 「기독교의 본질」(Das Wesen des Christentums)이라는 그의 책에서 기독교의 신학에 나타나는 형이상학의 문제는 헬라문명에 영향을 입은 순전히 이방적인 요소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이방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현재 독자가 살고있는 현대적으로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르낙 시대의 독일의 문화와 언어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sup>17)</sup>

20세기에 와서도 역시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는 점은 다를 바 없다. 이들은 과거 신앙인들의 삶속에 있는 실존적 의미를 찾는데 의의를 가진다. 바르트는 「로마서 주석」 초판 서두에서 “나의 해석하는 모든 에너지는 역사를 통하여 역사를 초월하여 있는 성경정신 곧 영원한 정신을 보는데 경주할 것” 이라고 하였고(The Romans, London 1957, oxford University). 제2판 서두에서 “본문안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는 창조적인 근육의 긴장이나 변증법적 방법의 부단한 탄력성있는 적용이 아니고는 풀어질수 없다” 고 말하였다(Ibid). 여기서의 변증법적 방법이란 시간과 영원의 부정과 긍정에서 나타나는 긴장인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칼 바르트의 신학은 계시와 역사와의 관계를 아주 단절시켜서 계시는 안전한 역사적인 가능성 있는 지식이 아니라고 한다. 결국 칼 바르트에게 있어서 성경은 저 건너편의 섬광일뿐 결코 고정되고 안정된 책은 아닌것이다. 이와같은 철학적인 기초로 성경에 대하여 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한 볼트만(Bultmann)은 성경은 인간의 신앙경험을 구체화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간주할수 없

16) 「현대역사적 예수 연구」 (볼트만 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7-30.

17) 박종철, 「구속사적 성경해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46-47.

다는 것이다. 18) 근간에는 크레이다누스의 소개 이래로 19) 화란을 중심으로 모범적 성경해석과 적용에 반대하여 일어난 구속사적 성경해석의 논쟁이 일고있으며, 사회적, 구조적, 문학적, 상황화 등의 여러 해석학적 접근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본문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하여 오히려 원저자이신 성령의 의도를 간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클루스터(Klooster)의 표현 “성경의 신실한 해석은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부터 나온다”<sup>20)</sup> 처럼 성령에 의존하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 3. 루터와 칼빈 이전의 성경관.

#### 3 - 1 . 존 위클리프 (John Wycliffe, 1325 - 1384)

소위 종교개혁이전의 종교개혁가로서 당시의 로마교회가 성직매매, 면죄부 판매 등의 종교적인 부패와 함께 이로 인하여 전 사회와 도덕적인 부패에 맞서 개혁의 반기를 들고서 교리적이고, 사상적인 개혁을 시도한 인물로서 영국의 존 위클리프를 들 수 있다. 옥스포드 출신의 학자로서 그는 본국인 영국과 교황이 있는 프랑스의 좋지 않은 묘한 정치관계 속에서 <sup>21)</sup> 그는 왕실의 고문으로 일하였다. 그의 많은 업적 가운데 무엇보다도 큰 업적은 당시의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일이었다.

로마교회는 별게이트역 성경만을 사용하였고 성경을 일반백성들이 읽을수 있는 용어로 번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위클리프는 원어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몰

18) 박종철, 48.

19) S. Greidanus, 「Sola Scriptura :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권수경 역 (Toronto).

20) 「목회와 신학」 4월호, 1991, 88.

21) Sidney M. Houghton, 「기독교교회사」 정중은 역 (서울:나침반, 1988), 112-113.

랐다. 그래서 다소 번역상의 그 정확성은 모자라지만 그러나 성경번역의 긴박성과 그의 열정으로 인하여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수 없었다. 더구나 당시에는 아직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일일이 필사해야 했고 또한 전도자들은 번역성경의 일부를 들고 다니면서 도시나 촌락에 사는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형편에서 그의 업적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다.<sup>22)</sup>

따라서 그는 로마교의 전통이나 교황제도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오직 성경을 최종 권위로 주장함으로써 로마교의 잘못된 전통을 부수는 일에 박차를 가하였었다. 그는 모든 진리는 성경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은 진리라고 주장하므로 성경이 교회와 국가를 통치하는 유일한 규범임을 주장하게 되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나 일부 성경기자들의 신빙성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저자들을 비서로 사용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난해한 구절들은 보다 명확한 구절들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며 성경의 지식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말씀연구와 설교는 어떤 성례들보다 중요하게 취급되었다.<sup>23)</sup> 특히 그는 성경지식을 널리 유포 시킬때에 설교보다 더 귀중한 의식은 없다고 생각했었다.<sup>24)</sup> 그는 1378년 「성경의 진리」 (*The Truth of Holy Scripture*) 라는 저서를 통하여 “성경의 최종적 규범을 통하여 교회, 전통, 종교회의, 심지어 교황 자신도 시험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다.<sup>25)</sup> 성경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통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22) *Ibid*, 116.

Tony Lane, 「기독교사상사」 (서울:나침반, 1988), 228.에서는 ‘이 순회 평신도 설교가 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교회의 권위에 반대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기의 수도사들과 비슷했다’ 고 말하고 있다.

23) William R. Canno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Middle Ages」 서영일 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395-397.

24) R. Tudur Jones, 「The Great Reformation」 김재영 역 (서울:나침반, 1990), 22.

25) Tony Lane, 228.



위클리프는 또한 성경의 권위를 높이면서 동시에 교황의 권위를 낮추었는데, 1379년 「교황의 권력」(*The Power of the Pope*)이라는 책을 통하여 “교황제도는 인간에 의해 세워진 제도이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분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는 교황의 권위는 그 지위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베드로의 도덕적 성품을 유지하는 것에 좌우된다고 하였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좇지 않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후에는 교황제도를 부정하고 모든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하였다.<sup>26)</sup> 위클리프는 또한 수도원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교황이 비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정치권력을 조종한다고 비난하였는데,<sup>27)</sup> 이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된 수도원들이 차츰 돈과 권력을 통한 부의 축적으로 인하여 교회의 정치적 목적으로 교황의 정치 선전장소로 전락되어 버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클리프는 성경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로마교의 화체설을 반대했다. 그는 1379년에 「배교」(*Apostasy*)라는 책을 통하여, 그리고 다음해에 「성례전」(*The Eucharist*)라는 책에서 이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어거스틴과 암부로스의 입장에서 성찬식에서의 떡과 포도주는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그는 떡과 포도주가 성찬예식때 그것을 먹을때에 실재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생각과 떡과 포도주가 소멸된다는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의 견해를 모두 비판했다.<sup>28)</sup> 위클리프의 이같은 활동은 로마교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그가 죽은 후 40년후에 콘스탄스 종교회의의 결정으로 그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의 유해는 화형에 처해지므로 로마교가 얼마나 그를 미워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의 일생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직접적으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남겨놓은 개혁운동은 그의 추종자들인 롤라드들(*The Lollards*)과 영국교회내에 계속 이어져서, 상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16세기 종교개혁의 물결속으로 흘러들어 갔다.<sup>29)</sup>

26) *Ibid*, 228-229.

27) *R. Tudur Jones*, 23.

28) *Tony Lane*, 229.

이와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였던 위클리프는 로마교의 부패한 제도에 맞서서 성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반대중에게 깨우쳤고 동시에 교황의 권위가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임을 교리와 사상사적으로 가르쳐서 결국 성경의 권위를 높였던 '종교개혁의 섯별' 이었다.

### 3 - 2 . 존 후스 (John Hus, 1373 - 1415)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교훈은 보헤미야 (체코슬로바키아) 지방에서 개혁운동을 전개하는 존 후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남부 보헤미야에서 태어난 그는 프라하 (Prague)에 소재한 찰스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함으로써 이전에 여기에서 도덕적 개혁을 위해 헌신하였던 발트하우젠의 콘라드 (Conrad of Waldhausen, 1360-1369), 얀 밀릭 (Jan Milic, 1369-1374) 그리고 야노프의 매튜 (Matthew of Janow, 1374-1394) 등의 역동적인 전통에 참여하게 되었다. 30)

후스는 위클리프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최고권위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례에 있어서는 로마교의 화체설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루터의 말대로 " 나는 후스의 가르침을 모르면서도 그의 견해를 가르쳤고 주장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후스주의자가 된 것이다 " 31) . 그는 로마교와 개혁사상자들 사이의 일종에 중개적 입장이었다.

그는 또한 교황 존 2세가 전쟁을 위한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항해서 이것을 비난하게 되었다. " 하나님만이 하시는 죄사함

29) William R. Cannon,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의 H. B. Workman의 John Wyclif (Oxford, 1926), 2 vols 재인용.

30) R. Tudur Jones, 23.

31) 이것은 루터가 1520년 2월 스팔라틴 (Spalatin) 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고 R. Tudur Jones, 24. 에서 재인용.

의 권리를 행사하는 면죄부는 비성경적이다 ” 라는 것이다. 그는 성경의 권위로 교황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판단, 심판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후스를 반대하는 반후스파들이 ‘교황이야말로 교회의 머리이며, 추기경단은 그 몸이고, 따라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독교를 정의할수 있는 권한은 이들(사제들)이 가지고 있다’ 라고 교황과 사제제도의 최고권위를 말하였지만 그러나 후스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32)

후스는 1414년에 콘스탄스에서 열릴 종교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받았는데 이것은 후스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대적자들이 이것을 기회로 그를 제거하려고 한것으로 볼수 있는데, 33) 이유는 그가 이 회의에 황제 지기스문드 (Sigismund) 의 안전보장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황 이노센트 3세는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므로 후스가 회의에 출두하여 그의 신학을 변론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그를 체포하여 악형을 가했었다. 34) 콘스탄스회의는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화형에 처할것을 결의하고는 세속정부가 신속히 형을 집행하도록 의뢰하였고, 그는 곧 1천명에 달하는 병사들의 호위 가운데 가까운 들로 인도되어 거기서 그의 육체는 불에 태워졌고, 재는 라인강에 뿌려졌다고 한다.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그의 육체가 불길에 완전히 싸일 때 까지 그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35)

“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

후스의 비참한 죽음에 격분한 보헤미아인들은 후스의 가르침을 따라 로마교와

32) William R. Cannon, 401.

33) Sidney M. Houghton, 102-121. 의 글에는

“후스가 심문받는 과정에서, 그가 말하려고 하면 사방에서 소리를 지르도록 해서 그의 말이 들리지 않도록 했는 것으로 보아, 후스를 정죄하기 위한 각본이 사전에 다 짜여져 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고 밝히고 있다.

34) William R. Cannon, 401.

35) Documenta Magistri Johannis Hus vitam, doctrinam, causam in Constantiensi Con cilio actam illustrantia (ed. F. Palacky, Prague, 1869). Sidney M. Houghton, 121-122 에서 재인용.

투쟁하는 입장에 서게되는 칼릭스틴(*Calixtines*) 이라 불리는 온건파와 강경파인 타블파(*Taborites*)로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이것이 존 후스를 죽게한 것과 무관하지 않는 지기스문드(*Sigismund*) 를 보헤미야 국민들이 왕으로 거부한, 일종의 민족주의적인 배경과 함께 나타난 것이지만 36)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다. 타블파의 경우에는 로마교를 허위교회로 규정하고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인들의 신조와 생활을 위한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였고, 그래서 '성경이 하라고 한 것 외에는 하면 안된다' 라는 규정과 함께 화체설을 포함한 모든 로마교의 성례행위를 비난하였는데, 결국 이들은 '당시의 부패한 로마교제도와 교황제도에 반대하여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이야말로 교황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절대적 권위로 인정한 존 후스의 가르침을 따라 '오직 성경'의 권위를 높였던 것이다.

### 3 - 3 . 왈도파 (*Waldenses*)

프랑스의 리옹에 살고 있었던 부유한 상인 출신인 피터 왈도(*Peter Waldo*)를 중심으로 1177년에 성경의 진리를 전파하고자 모인 남녀들이 모여서 단체를 조직했는데, 그들은 「왈도파」 혹은 「왈도파 사람들」 그리고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로 불리게 되었다. 왈도는 1170년 경에 4복음서와 일부의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한 사제를 고용하였으며 그 일로 깊은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당시의 주교나 또는 교황의 말은 토대가 될수 없으며 '오직 성경만이' 참 토대가 되며 인간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보자가 되실 뿐이며 성인들은 경배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알게되었다. 37)

이를 계기로 그들은 모여서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36) *William R. Cannon, 402.*

37) *Sidney M. Houghton, 108.*

을 따라서 순회전도자들로 나서게 되었다. 그들은 전도의 원리에 따라서 '들썩 짝을 지어' 행상차림으로 물건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들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며 번역된 성경책과 경건 서적들을 보급하는 일에 힘을 썼다. 그러나 처음에는 관대하였던 교회가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이들을 핍박하게 되었는데 수년동안 수천명의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거나 고문을 당해야 했다. 임산부를 등에 짊어 죽이기도 했고, 산에 몰래 숨어 있었던 400여명의 부녀자들을 발견하여, 은신처인 동굴입구에다 불을 질러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게했다.<sup>38)</sup>

그들은 박해를 피해 스페인과 남부 이태리로 도망갔지만 거기서도 환영을 못받고 주로 알프스 남부지역으로 피난하여 그곳에서 성경공부와 공동체 활동을 계속해나갔다. 그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맥이 끊기지 않고 반(反)로마교 운동들 중에서 가장 광범한 기반을 갖게 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은 사치와 향락으로 물들은 로마교의 형식주의 및 사제주의와는 달리, 성경의 가르침을 형식이 아니라 몸소 삶과 행동으로 나타내기를 강조했었고, 또 그렇게 전도의 생활과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였기 때문이었다. 왈도파는 성경의 권위를 높였으며, 그것을 실제 삶을 통하여 나타낼때 귀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성경에 위배되는 성자숭배와 서물사상,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연옥에 대한 신앙을 반대하였다.<sup>39)</sup>

이와같이 왈도파는 그들의 숭고한 믿음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깨닫고 성경공부를 통한 확신으로 부패한 로마교 제도에 맞서서 '오직 성경'의 권위를 높였던 결과가 개신교 종교개혁으로

38) *Ibid*, 109-111.

17세기에 있었던 왈도파에 대한 박해는 존 밀턴이 쓴 유명한 시에 잘 나타난다.

'피어던트에서 일어난 최근의 학살에 대하여' (1655년).

그러나 크롬웰의 즐기찬 항의와 군사행동을 통한 위협으로 종식되게 되었다고 한다.

39) *R. Tudur Jones*, 25.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들은 이 개혁의 대열에 최선봉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자부심을 누렸을 것이다.

### 3 - 4 . 사보나롤라 (*Girolamo Savonara, 1452 - 1498*)

존 위클리프와 존 후스가 로마교의 비성경적인 면을 교리적으로 공격하였다고 한다면, 사보나롤라는 교리적인 면에서의 개혁가는 아니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동포인 이태리인들의 보도덕하고 악한 생활을 먼저 공격하므로 민중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교의 잘못을 지적했던 엄숙한 삶의 개혁가였다. 그는 도미니크 수도회에 잠시 머물면서 금욕적인 삶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암흑에 빠져있던 플로렌스의 도시에서 설교가로 활동함으로써 대중들의 주목을 끌게되었는데, 그의 설교는 성경강해였으며 주로 주님의 진노의 날이 임박했다는 주제와 함께 그들의 부패하고 사치, 향락하는 삶을 청산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설교였다.<sup>40)</sup>

이런 그의 예언자적인 설교는 이태리 군주였던 로렌조의 멸망과 프랑스의 이태리 침공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로렌조의 아들대신 그가 플로렌스의 통치자로 뽑혀서 3년동안 엄격한 신정체제로 통치한 것에 반기를 들고 나선 반동자들로 인하여 점점 그의 영향력은 줄게 되었다. 그들 중에 다수는 이미 범죄와 사치와 도박 등에 깊이 물든 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과 모범적인 엄격한 제제에 젖어들지를 못하였다.<sup>41)</sup> 또한 사악한 교황으로 소문난 알렉산더 6세가 사보나롤라를 회유하였으나 교황의 뜻대로 굽히지 않자 마침내 교황은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그를 파문하여 투옥시켰다. 그는 1498년 5월 45세의 나이로 화형당했다. 수많은 군중들이 보

40) *Ibid*, 27.

41) *Sidney M. Houghton*, 125.

는 앞에서 사제의 옷을 벗긴 채 ‘선지자여 너의 권세를 보이고 기적을 행하라’는 조롱과 배척속에서 그는 침묵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42)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그는 비록 학자다운 면모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조국 이태리를 위해서 개혁의 발판을 터 놓은 종교개혁의 선구자임이 분명하다. 사회와 도덕의 부패는 곧 당시 로마교와 사제들의 부패 때문이었기에 교황과 그 권력에 맞서서, 대중설교로서 ‘성경의 권위를 높혔고’ 성경을 대중들에게 가르쳤으며, 또한 성경의 원리를 플로렌스市에 도입하여 사회제도를 개혁하려 했던 그의 노력은 루터가 그를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43)

### 3 - 5 . 신비주의 운동

중세 말기에 스페인과 영국, 이태리 등에서 신플라톤주의적 경향을 띤 신비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역사상 위대한 신비주의 저술가들은 대부분 신비주의가 한창 꽃을 피운 14,15세기에 살았다. 그들은 캐더린(Catherine of Siena), 월터 힐톤(Walter Hilton), 리차드 롤(Richard Rolle), 헨리 수소(Henry Suso) 등이었다. 신비주의는 신플라톤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지적이며 사변적 방법의 신비주의자와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강조하는 실천적방법의 신비주의로 나뉜다. 44)

전자의 대표자로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를 들수 있다. 신플라톤주의적 신비주의는 항상 범신론으로 흐르기 쉬운 경향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스승이었지만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불꽃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므로 1326년 교황에 의해 그의 진술들이 정죄받았다. 그러나 에크하르트의 영향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전수되는데, 특히 스트라스버거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요한 타올러(John Tauler)에게 전

42) Ibid, 125-128.

43) Ibid, 128.

44) Tony Lane, 224.

수된다. 타올리는 신비주의의 실천적인면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그는 설교자로 명성을 얻었는데 그의 신비주의는 영국의 신비주의와 토마스 아 켐피스의 「오늘의 헌신」(*the Modern Devotion*)에 큰 영향을 끼쳤다.<sup>45)</sup>

신비주의 산물중에서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다른 중재가 필요없이 명상을 통하여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이룰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로마교의 사치와 부패를 비난하고 내면의 생활을 강조했다. 이들은 고해성사의 제도를 거치지 않고, 상호 서로간에 죄를 고백했으며, 그들 스스로 성례를 거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와같이 로마교의 사제제도 없이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교황이 없어도 신학과 신앙이 가능하다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이들이 내면적 경건을 추구하고 로마교의 계급제도와 교황의 권위를 약화시키긴 했지만,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교회도 불필요한 것으로 까지 생각하여 당시 조직교회의 주변을 맴돌았으며, 심지어 개인의 내면경건을 강조한 나머지 교회가 가진 성경조차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 것과 영과 육을 분리하여 영에 속한 사람은 정욕을 행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주장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 3 - 6 . 쾰링글리 (*Ulrich Zwingli, 1484 - 1531*)

쾰링글리는 루터와 동시대에 태어나서 개혁의 시기도 비슷했지만 여러면에서 루터와 다른 면을 보였다. 그는 루터와는 달리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또 신학에서 이성의 가치를 거의 인정하지 않은 루터와는 달리 그는 어떠한 교리도 이성에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이런 차이는 '성례관'을 통하여도 잘알려진 바이다.

45) *Ibid.*, 224-225.



쾨빙글리는 헬라어에 능통하여서, 1516년 에라스무스판 신약성경이 나오자 헬라어로 바울서신을 암기하기도 했으며, 쥐리히 교회에서의 설교에서도 강단에 헬라어 성경을 놓고서 본문으로부터 직접 해설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는 또한 당시 스위스 전역에서 생활수단으로 있어 온 용병제도에 대해 반대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중군신부로서 스위스의 용병들과 함께 1513년 노바라전투와 1515년 밀란교회에서 벌어진 마리거나노전투 등에 참가하여서 용병제도의 최악성을 목격하고서 그는 정치 풍자시나 설교를 통하여 이 제도를 비난하였는데, 이것 때문에 친불주의자들로부터 그는 미움을 받고 10년간 민중들과 가까이 생활하였던 목회지인 '글래루스'를 떠나야 했다.<sup>46)</sup>

그는 쥐리히 성당의 교구 사제가 되어서 본격적인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는 시의회를 요청하여 그의 개혁의 내용들을 소개하므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점진적인 개혁을 시도한 것으로 볼수있다. 그는 시의회에서의 논쟁때 교황의 대제사장적 직분과 미사제도, 면죄부 판매, 사제제도, 연옥의 교리, 신부들의 독신강요, 등의 구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논박 하였는데 그의 논쟁의 핵심은 종교개혁가들은 순수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복원 시키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중세교회가 원래 교회를 변질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인 것이었다.<sup>47)</sup>

“ 아무도 이 자리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에 기초한 궤변을 늘어놓지 못하게 하자. 모두 함께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심판하도록 하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발견된 진리는 계속 보전하도록 하자. 아 멘. 이리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만 통치하실지어다. ”

결국 이 논쟁에서 쾨빙글리는 승리하였고, 그의 안건을 시의회는 받아들임으로

46) Lewis W. Spitz, 『The Reformation』 서영일 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144-145. ‘ 당시 스위스는 프랑스와 맺은 조약으로 인해서 프랑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대신 충성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

47) Ibid, 148-149.

4번째 논쟁에서는 교회에서 성상을 폐지하는 결정을, 1525년에 와서는 미사가 철폐되고 단순한 공동 예배로 돌아서게 되었다.<sup>48)</sup> 그러나 한편 쾰링글리의 개인적 기호로 인해서 예배에 있어서 성가대의 찬양, 오르간 음악 등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예배수단을 제거한 것은,<sup>49)</sup> 성상제거를 위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중세의 뛰어난 작품들을 훼손한 근시안적인 처사와 같은 것으로 보여진다.<sup>50)</sup>

그는 또한 성례 논쟁에서 '상징설'을 주장하였는데, 이것 역시 영과 육을 대비시킴으로 물질세계를 불신하고 영적인 실체를 강조한 것으로, 에라스무스에게 영향을 입은 요인으로 볼수있다. 즉, 떡이나 포도의 물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실체를 더러내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만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512년 필립(*Landgrave Phillip of Hesse*)의 중재로 말부르크(*Marburg*)에서 루터, 멜랑톤, 부처 등과 함께 성례론의 일치를 위해 열린 논쟁을 벌였으나 그러나 결과는 독일과 스위스 종교개혁간의 차이점만 더러나게 한 것 밖에 없었다. 또한 쾰링글리가 이같이 성찬을 단순히 기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데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내과의사이며 인문주의자였던 코르넬리우스 호헨(*Cornellius Hoen*)의 영향이 컸다. 호헨이 쾰링글리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는 구절은 하나의 문학적 표현양식이므로 단지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는 해석에 감명을 입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역사가 루이스 스피츠는 그의 책에서 "에라스무스의 신교에 대한 가장 큰 피해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하여'를 통해 루터와 대결한 점이 아니라, 암암리에 쾰링글리에게 비물질주의적인 영향을 주입시킴으로 신앙적 신비의 문제를 탐구하는데 있어서

48) *Tony Lane, 276.*

49) 쾰링글리의 신학접근 방법은 '성경에서 말 한것만 할수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해서는 안된다)' 이었기 때문인데, 루터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다.

50) *Lewis W. Spitz, 151.*

성상제거 작업으로 교회의 벽에 흰 칠을 하므로 중세의 미술품들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루이스 스피츠는 이것을 '그는 청교도적 관념을 소유한 것'으로 표현했는데, 다음을 인용한다.

"우리 쾰링글리에는 교회들이 진정 광휘를 발하고 있다. 벽들은 순수한 백색으로 빛나고 있다!" - *Charles Garside, Jr., Zwingli and the Art (New Haven, 1966), 146-160.* 재인용.

인문주의자 호헨의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한 점인지도 모른다.” 51) 라는 견해에 동감한다.

쯔빙글리의 성경관의 기초는 에라스무스에게 사상적 영향을 입은 것으로서 그는 원래의 근원에서부터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인문주의자들의 사상에 동조하였기 때문에 그의 신학의 모든 근원은 원천 그 자체인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지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에라스무스의 주장인 ‘복음적 단순’과 비스콜라적 ‘계시의존’의 영향으로서 그의 저술들에 나타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성과 확실성」(*The Clarity and Certainty of God's Word*)을 저술하면서, 여기에서 그는 개혁의 근본원리가 바로 ‘성경’임을 밝히고 있다. 52) 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어거스틴의 영감설과 역사성, 그리고 예언의 성취로서의 성경의 가치를 말하므로 교회의 전통보다 성경이 더 권위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루터와 칼빈과 함께 성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성령의 조명을 강조하였다. 그는 어느 정도의 자연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루터보다 이성의 능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53) 따라서 신학에 있어서 ‘이성적 작업’을 통하여 성경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고, 예정론을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논리적 귀결로 보았던 것이다. 그는 예배에 있어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으로 감각적인 호소를 일체 경멸했고, 악기 사용을 반대했고 ‘오직 말씀’만을 최고로 간주했다. 쯔빙글리가 비록 그의 신학에 있어서 지성주의적인 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성경의 권위와 함께 성경의 계시에 의존한 지성주의적 개혁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51) *Ibid*, 161.

52) *Tony Lane*, 276.

53) *Ibid*, 275.

## 4. 루터 (*Martin Luther, 1484-1546*)

독일에서 출생한 루터는 처음에 법률을 공부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기회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어거스틴 수도회에서 가브리엘 비엘의 제자로부터 신학수업을 받고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로 활동 하면서 당시 외부적 개혁의 요구와 함께 진정한 영적인 개혁을 대표하는 개혁가로 활약하였다.<sup>54)</sup>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 신학자가 되게한 동기는 구원의 문제로 인한 심각한 고민때문이었다.

### 4 - 1 . 루터의 신학의 출발점

그는 자기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해답을 찾기를 갈구하였다. 자신의 죄 문제를 고해성사와 고행과 금식의 행위로서 과연 해결할수 있을까? 이런 나약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앞에서 의롭게 여겨질수 있을까? 이렇게 루터는 율법에 정죄와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문제로 고민하면서<sup>55)</sup> 1513년 부터 시편강해를 시작하게 되었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시편 22편을 읽는 가운데 그는 자기자신의 고민과 동일한 것을 깨닫고 '루터 자신이 당할 버림과 고난을 예수께서 담당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공의가 십자가의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만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할 죄인인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고 그는 생각 했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정죄 하심과 진노 하심이 아니라 구원과 의롭게 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구원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sup>56)</sup> 으로

54) *Lewis W. Spitz, 49.*

55) *Tony Lane, 253.*

56) 롬 1:17 참조.

*Tony Lane, 253-254.*

깨달았다.

#### 4 - 2 . 95개 신조와 웜스국회 -- '성경의 권위 확립'

루터는 이 깨달음을 계기로 1517년에 95개조 신조문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로마교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내용과 면죄부 판매의 비성경적임을 알리는 것이었다. 결국 이 일은 당시에 독일인들 중에 착취로 인한 혐오감을 가진 사람들, 특히 빈농들의 국가주의 57) 와 함께 맞물려서 종교개혁의 불길로 이어지게 되었다. 루터는 1519년 로마교 사제인 에크(Eck)와 라이프치히에서 95개조 신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면서 루터는 점점 교회의 문제에서 본질적인 권위의 문제로 몰아갔었고, 성경의 권위가 종교회의나 교황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으며, 후스를 처단한 것은 종교개혁의 오류였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루터는 로마교로부터 파문을 당하였으나, 그 일로 오히려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58) 또한 그 여파로 루터는 웜스(Worms)국회에 소환되어 그의 주장을 철회할 것의 요구에 불응했음에도 정치적인 안목을 갖고있는 황제는 제후들이 후원하고 있는 루터를 해칠수가 없었다. 59)

#### 4 - 3 . 루터의 '성경관'

57) *Lewis W. Spitz, 78-83.*

루터는 뮌쾰를 따르는 과격한 농민들이 봉건제도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킨데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는 입장인 것은 당시에 루터의 배후를 제후들이 돌봐주었기 때문에 루터는 초기에는 농노의 실정을 잘 파악하지 못한 형편 이었다고 볼 수있다.

58) *Tony Lane, 255-256.*

59) *Ibid, 256.*

황제 카알은 터어키와의 전쟁에서 전체독일의 연합이 필요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로 독일이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루터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라는 폭 넓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요한복음의 로고스를 성육하신 그리스도로 보았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며, 성경이 성육하신 로고스를 지칭하기 때문에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았다. 이와같이 그의 성경이해는 대단히 '기독교적'임을 알수있다. 60)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을 덜 중요하게 취급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성례관에서는 그는 「바벨론 포로 상태의 교회」 라는 논문을 통해 로마교의 성례의 오용을 비판하였다. 그는 로마교의 7성례중 오직 세례, 성찬식, 고행 만을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으로 인정했다. 61) 또한 그는 오랜 쾰링글리와의 논쟁을 통하여서도 견해를 합하지 못하고서 성찬에서의 떡과 포도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단지 상징만이 아니라 실제 그 떡과 포도안에, 더불어, 아래에 임재 하신다는 견해를 분명히 고수하였다. 루터는 성경해석의 열쇠로서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구속사적인 성경해석을 강조했다. 본문을 먼저 문맥에 비취 조명함으로써 성경의 의도를 밝히고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속에서 이해 되어져야 하고, 성령의 빛 아래서 이해 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말씀을 가슴으로 듣는 내적말씀과 귀로 듣는 외적말씀으로 나누었는데, 과격파들로 부터 성령의 내적 조명을 성경보다 위에 둔다는 비난도 받았다.

그는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다고 말하고 이것을 대비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율법은 심판의 말씀이고, 복음은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죄인이 의인된 것은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주었기 때문인고로 율법도 결국 나를 살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 '의'는 법정적인 의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것이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Sola Fide*)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된 것이므로 실로 하나님의 은혜(*Sola Gratia*) 인 것이다. 그는 이러한 견해로서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을

60) R. Prenter, 「Wether on Word and Sacrament」 in more about Luther. 65.

61) Lewis W. Spitz, 71.

대비적으로 설명 하면서 결국, 인간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광의 신학을 버리고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수 있다는 '십자가의 신학'을 강조하였다. 62)

마르틴 루터, 그는 당시의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고, 교황이 성경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때에 성경의 권위를 높였고 성경만의 권위를 높혔던 것이다(*Sola Scriptura*). 그는 1520년에 집필한 「독일 통치 계급에 보내는 호소」에서 통치계급과 일반일을 구별하며, 성직자를 '교회'로 보는 로마교의 잘못 됨을 지적하고 사제제도는 통치의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 이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교황에 대한 권위의 도전과 함께 진정한 통치로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63)

## 5. 칼빈의 성경관

존 칼빈 (*John Calvin, 1509-1564*), 그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해석의 원리를 어디에 두었으며, 또한 그가 보는 성경의 특성 그리고 성경의 내적 계시로의 조명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봄으로 칼빈의 성경관을 이해하고자 한다.

### 5 - 1 . 성경에 대한 그의 주된 관심사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 1권 서두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먼저 다룸으

62) 하이델베르그 교수들 (주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와 카스파를 올리비아누스(*Kaspar Olivianus*)에 의해) 이 중심으로 작성한 하이델베르그 논쟁 21조 참조.

63) *Tony Lane, 256-257.*

로써 그의 신학적 관심을 '신론'에 집중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모든 신학의 기초가 하나님과 그의 계시로서의 '성경'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안내자와 교사로서 꼭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64) 또한 성경외의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들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65)

이것은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라는 주제는 일반화 되었지만은 성경의 권위를 새롭게 한것은 칼빈에게서 우선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칼빈을 따르는 개혁주의와 그리고 루터파 신앙고백서들의 비교에서 찾을수 있는데 66) 칼빈과 루터는 둘다 '성경'을 강조하였지만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신칭의를 강조한 나머지 '믿음으로'(Sola Fide)에 강조점을 두었고 칼빈은 계시된 성경으로서의 '기록된 말씀'을 강조한 것을 알수있다. 67)

64) *Inst.*, I. 6장에서 칼빈은

- 1) 하나님은 유일하게 성경의 길로서만이 자신을 나타내심.
- 2)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 3) 그러기에 인간은 성경을 떠나서는 오류에 빠질수 밖에 없으며.
- 4) 그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전해 진다.

고 말하고 있다.

65) *Inst.*, I. 9.1. 에서 그는 당시에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이르는 특별한 길이 있다고 공상하는 자들로써 리버틴(Libertin) 파의 비웃음, "죽은, 그리고 죽이는 문자만을 따르는.." 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그런자들을 가리켜 '광신자들' 혹은 '악마적 광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하나님의 자녀들을 궁극적인 목표로 인도하는 성경의 유익을 무상(無常)하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어찌 악마적인 광란이라 아니하겠는가? "

66) 이근삼, 「칼빈주의 특성과 강조점」(서울:엠포, 1989), 14. 에서 저자인 이근삼박사는 루터파 신앙고백으로서 영향력이 많은 *Augusberg Confession(1530)*에는 그 초두에 성경에 관한 진술이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앙고백 *Genevan - Confession (1536)*, *Gallican Confession (1559)*, *Belgic Confession (1561)*, *Second Helvetic Confession(1566)* 과 *Westminster Confession(1646)* 등은 모두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67) 이근삼, 14.



## 5 - 2 . 성경의 권위 --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터 주어지고 성령의 증거로 확증된다.

로마교가 성경에 대한 참된 권위를 교회와 전통에 둠으로 해서 교회(로마교)나 교황이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고, 또한 그들이 임의로 성경의 범위를 결정하는 오류에 대해서 반박 하면서 칼빈은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것이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다.<sup>68)</sup> 이것은 성경의 권위가 교회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말씀에 기초하고 세워졌기 때문인 것이다.<sup>69)</sup> 그래서 칼빈은 비록 성경을 해석하고 결정하는 결정권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성경의 확실성 까지도 교회의 승인에 달려 있다고 가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 하므로 교회보다 성경이 앞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70)</sup> 이와같이 성경의 권위가 교회로 부터가 아니라 교회를 있게하신 하나님으로 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의 참된 해석자 역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달려있으며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수 없는 것이다.<sup>71)</sup> 칼빈은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한다”는 성경 해석 원리는 루터와 일치하지만 루터는 문자적 해석을 주장하였고

칼빈은 기록된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 혹은 성령으로 보고서 항상 성령의 관계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72)</sup> 이같은 칼빈의 신학사상에 큰 영향을 입은 *Westminster Confession* (1646년)에서도 성경의 권위와 그 충족성을 강조함과 함께 또한 성령의 내적조명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sup>73)</sup>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68) *Inst.* I. 7. 1-2.

69) *Inst.* IV. 2. 4.

참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엡 2:20).

70) *Inst.* I. 7. 1-2.

참조. *Werke. WA* III. 454. 에서 루터는 그의 시편강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와 교회가 태어나는 모태’. 재인용.

71) *Inst.* I. 7. 4-5.

72)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장신대 출판부, 1984), 245.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74) 그 자체에 오류가 있을수 없고, 더우기 단순한 인간적인 안목 으로나 혹은 사사로이 이 성경을 푼다고 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75)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기에 또한 성령의 내적조명의 채널을 통하여야 만이 그것을 읽는 독자가 암흑에서 광명으로 나아가듯 비로소 기록된 말씀의 저자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칼빈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 있지만 성령에 의해 조명된 자들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볼 눈을 갖지 못한다고 말한다. 76) 그러므로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한 증인으로 적합하듯이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신임을 얻지를 못할 것이다. 77)

말씀과 성령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에서 떠난 성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있는 객관적 계시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경험주의와 새로운 교리로 이끌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9:3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일종의 상호 결속으로 주님은 말씀과 성령의 확실성을 결합시켜서 말씀의 완전한 종교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빛 되시며 말씀안에서 그를 인식하게 됨으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성령을 알게 된다.”

이것은 로마교와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과 성령을 분리하는 열심파를 반대하기 위하여 본래 계획된 말로써 이것의 상관 관계는 기독교 생활의 모든 면에 관련되어 있다고 이근삼 박사는 그의 글에서 말하고 있다. 78)

73) *Westminster Confession*, 제 1장 5조. “ .. 성경의 무오류의 진리와 신적권위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과 확신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다 ”.

74) 딤후 3:16. 벰후 1:21.

75) 벰후 1:20-21.

76) *John Calvin*, 「*Comm. 2 Tim. 3:16*」.

77) *Inst. I. 7. 4*.

78) 이근삼, 16.

## 6. 루터와 칼빈의 비교연구.

칼빈과 루터에게 있어서의 신학의 관심사는 둘다 마찬가지로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을 통하여, 오직 믿음 (sola fide) 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sola Gratia) 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루터의 주된 신학의 관심사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부터 구원을 얻을수 있는가? 라는 구원론에서 출발한다면 칼빈의 주된 관심사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수 있을까? 라는 성화론에서 출발한다고 하겠다.<sup>79)</sup> 로마교의 신학자요 추기경이었던 사돌렛또(Jacop Sadoletto)가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구원에 있다고 강조했을 때 칼빈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단정하고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를 구원하는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있다고 역설했다.<sup>80)</sup>

칼빈과 루터는 둘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내적조명'을 강조 하였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가 성령의 빛을 통하여야 만이 올바른 계시의 뜻을 알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루터는 대부분 '기독교론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에 칼빈은 '신론'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성례전에 서도, 이같은 성경관의 차이로 인하여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실재성을 강조하였고, 칼빈은 성찬때의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79) 칼빈은 *Inst.*, I.1.1.에서 첫 출발을 인간의 구원이나 칭의의 교리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것은 칼빈의 주된 관심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80) John C. Olin, *A Reformation Debate : Sadoletto's Letter to the Genevans and Calvin's Reply*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66), 58. 또한 소교리문답 제 1문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다.

주장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말씀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이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통로요, 영혼의 건강을 위하는 음식과 의약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제물로 희생시키는 신령한 칼로 생각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나오는 통로가 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게 한다. 그러나 루터에게서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루터는 율법과 복음의 이중적 개념을 설명하기를, 율법의 영적인 역할과 복음의 색다른 점은 성질상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루터는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을수 있는 것이다. 율법은 폐기 될수 없는 것으로서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도 여전히 죄인인만큼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되었음을 알게 해 주고 용서와 은혜와 생명을 알게 해 준다.

칼빈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그래서 “ 율법은 하나님의 의와 그것을 거울로 우리의 죄악성을 드러내주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해 준다.” 81) 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율법과 복음의 이중성을 하나님의 속성가운데서 설명하였다. 82)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 이신 것이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은 율법을 만나면서 또한 복음에 나타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과도 만나는 것이다.

## 7. Scriptura - Sola

### 7 - 1. 자유주의의 위협

---

81) *Inst.* II. 7. 3.

82) *Inst.* II. 14. 5.

칼빈주의적 전통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등장으로 인하여 큰 변동을 갖게 되었다. 자유주의는 인본주의와 서구의 합리주의적 종교관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종교적 감정, 자기 이해, 윤리적 지식에 대한 인간의 증언으로 보는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오류를 범할수 있는 단순한 인간이 쓴 책이므로 비평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에 모든 신자들에게 권위있었던 성경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나갔으므로 더 이상 성경은 오늘의 표준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그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초자연적인 요소를 배제하므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 정도로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감정은 무오한 존경심이 아니라 성경이 그들을 인도해 줄때만 감사하는 마음이고 성경의 저자와 의견을 달리할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83)</sup>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 이성의 눈으로 초월적인 성령의 산물인 성경의 뜻을 다 이해할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오직 믿음의 통로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 7 - 2. 신정통주의의 위험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성경의 권위가 손상되었을 때에 'Sola - Scriptura'를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신학운동이 일어났는데 바르트(K. Barth)를 중심한 신정통주의이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하고 초월성을 강조하였다. 바르트는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는 생각에 반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성경을 오류가 많은 인간의

83) 김동춘, 「개혁주의 자료집」, 63-64.

산물로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그것을 사용 하실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죄많은 세상에 행동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실때만이 인간이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옛정통신학과 새로운 현대신학의 합성으로 보는 84) 경향 이 타당할 것이다.

### 7 - 3. 근본주의적 경향.

근본주의 라고 말할때 19세기말과 20세기초 미국의 보수주의 교회내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신학적 입장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1930년경 보수와 자유주의의 논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의 근본주의는 미국에서 생겨난 근본주의의 영향을 미국에 유학하여 배움으로서, 혹은 선교사의 파송 등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에 들어오므로 형성되었다. 초기의 근본주의 운동은 학문적이고 건전하였으나 세월을 거치는 동안 많은 변질을 가져왔다고 Edward J. CarneII 이나 Herold Ockenga 등이 지적한다. 85) 이러한 근본주의의 성향은 폐쇄적이라는 말을 듣게되었고, 신학의 학문성과 연구에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86)

보수주의 교회의 우수성은 철저한 성경관에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친 나머지 성경의 문자자체나 성경 이라는 문서 자체를 신격화하여 성경문자에 대한 어떠한 비평적 입장도 배격하는 경향이다. 그래서 성경의 완전주의(Tota - Scriptura)를 표방하고 기록된 문자와 책으로서의 '성경만을(Scriptura-Sola)' 고집하므로 성경의 다양성을 일체 거부하는 '성경주의'(Biblicism)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성경을

84) Ibid, 65-67.

85) 김영한, 「개혁주의와 근본주의」, 복음주의 신학회 '성경과 신학' 1집, 119-120.

86) Ibid, 125-127.

“ Carl F. Henry는 근본주의는 자체의 정체성에 빠져서 더이상 학문적 발전을 못 가져왔고, 신정통주의가 20세기 신학을 주도하게 되었다 ” 고 밝힌다.

문자에 치중해서 기계적으로만 이해하게 될때 성경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양성의 의미는 상실된다. 성경해석의 열쇠는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어거스틴, 칼빈이 주장한바 대로 '문자적 해석에 근거한 비유적, 또는 은유적 해석도 가능하며, 한 문자에 갖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전체와의 유기적인 연관관계속에서, 성령의 조명아래에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에는 문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역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근본주의의 부정적인 요소는 결국 교리적인 면을 강조한 나머지 독선적이고 인간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질수 있게 한다. 그래서 다른 교파나 다른 신학과의 학문적인 교류마저도 일체 거부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근본주의의 정체성. 그것은 이처럼 무서운 요소를 담고있다.

#### 7 - 5. 개혁주의적 입장.

칼빈을 포함한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왜 그토록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였는가? 그것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가운데서 잘 이해할수 있었다. 로마교전통이나 교황의 권위에 가려져 있었고 오용 되어졌던 성경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높혔던 것이다. 특히나 누구보다도 성경의 가치와 권위를 높혔던 칼빈을 따르는 칼빈주의적 전통에서는 역시 성경의 권위에 관한 성경의 무오성과 영감교리를 따르고 있다. 성경의 권위문제는 당연히 성경의 영감교리와 관련이 있다.<sup>87)</sup> 칼빈과 루터는 성경의 권위와 함께 영감성을 강조하였고 또한 그것을 읽는 독자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내적조명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았다.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전체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비록 인간 기자를 사용하셨지만 성령께서 그들 개개인을 오류가 없도록 섭리하셔서 신구약 전체가 통일성있게 잘 짜여진 것이다. 칼빈은 축자 영감론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의 기자들을 기계적인 도구로만 사용 했다고도 보지 않았다.

87) *Inst*, I. 7.

오늘날 근본주의 전통처럼 성경의 문자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문자주의에 빠져서 성령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혁가들이 말하는 '오직 성경으로'는 '성경만으로'와 분명 그 의미에서 다르다. 개혁가들은 부패한 권위에 대한 절대적이고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오직 성경'을 뜻한 것이고 근본주의는 자유로운 성경해석을 말한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여 문서자체인 '성경만으로'의 해석을 강조하였다. 규범없는 너무 다양하고 자유로운 해석은 인본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게 된다. 따라서 절대적 규범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Scriptura-Sola로서의 규범이 아니라, Sola-Scriptura 이어야 한다. 문자와 문서자체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으로'를 강조하는 것이다.

## 8. 교회를 향한 루터와 칼빈의 메시지.

### 8 - 1 . 현대 교회의 상황 -- 해석 및 적용의 문제점, 말씀의 권위 상실.

현대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은 물질적으로는 비대해 졌지만 영적으로는 빈곤의 상태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어서, 내부적으로도 말씀의 부재상태로 인한 진통과 또한 외부로 루터의 이단사술에 쉽게 자극을 받는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부요로 인해서, 이전에 비해 교회가 규모는 더욱 커지고 조직은 다양해 졌지만 그러나 불협화음의 소리는 끊이질 않는다. 이것은 내부적 이든, 외부적 요인이든 간에 그 원인은 현대교회에 형식과 제도는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다 중요한 '말씀'(성경)의 원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데 있다고 볼수있다. 교회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성경을 교인들에게 제대로 진지하게



안 가르쳤으며 그래서 기존교회에 말씀의 갈함을 느낀 사람들은 기도원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더우기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성도들은 소위 새로운 성경해석법이었던, '시한부 재림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성경해석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sup>88)</sup> 또한 근세이후 서구 합리주의 사상과 더불어 꽃피운 자유주의의 물결이 오늘날 교회에도 밀려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sup>89)</sup>

루터나 칼빈이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내적조명을 그렇게 강조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것을 읽는 사람도 성령의 조명이 없는 성경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가르쳤지만, 이 원리가 현대교회에 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로운 사고와 합리적 이성의 추론의 발전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러한 시각으로 읽는 개인의 경우에는 '말씀의 본질'과 동떨어진 결론에 이르기 쉬우며, 교회에서 설교식 성경공부보다 자유로운 그룹 스타디식의 성경공부를 더 선호하는 것에는 이런 헛점도 있음을 유의하여 대처해야 할 줄 안다.

현대교회의 또 다른 심각성은 '권위'의 상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 에이지사상이 사회전반에 끼친 악 영향은 지대한 것인데, 이로 인해서 나타난 특징이 절대자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고, 기존 질서나 제도를 경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사회, 개인 도덕이 무너지고 문란하게 되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아랫사람이 일반적인 윗사람에 대한 '공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교회가 이러한 악한 영향을 서서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그다지 크게 여기지 않는 것이 더욱 개탄할 노릇이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세상의 조류가 '근본적으

88)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장림 목사'를 중심으로 10월 28일 재림 주장하였음.

그러나 대부분이 그랬듯이 이들의 예언은 빗나갔고, 얼마후 뿔뿔히 흩어지게 되었다.

89) 최 훈, 「성경의 권위」 (서울:성광문화사, 1977), 61-80.

로' 성경에 까지 여파를 미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 절대 표준이요, 절대 권위 인' 그 성경을 절대표준으로 삼지 않고 성경의 내용을 공경하지 않고,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던 종교개혁가들의 신관과도 정반대이며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처사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그 기능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이단이나, 이단사상이 나타날 때, 교회는 즉시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를 변증하고, 이단의 세력으로 부터 교회를 '오직 말씀으로' 든든히 지켜왔음은 역사가들로 통해 전해지고 있는 바이다.

## 8 - 2 . 현대적 적용

현대교회는 무엇보다 '바른 성경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여러 어수선한 사슬들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교회는 '경건과 목상을 통한 성경공부'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통하여 말씀에 진지한 성도, 성경을 사랑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 절대주권을 높이는 성도를 배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교회를 '경건한 신앙의 도장'으로 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즉, 교회는 신앙의 터전이므로 명상과 말씀목상과 개인기도를 통한 영적인 훈련이 되도록 교회의 프로그램에서 혹은 교회 건물 내에서의 변화를 통하여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공부반 이나 성경읽기반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교회가 모일 때 마다 조직적으로 실시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어야 할줄 안다. 성경공부에서는 무턱대고 조를 여러갈래로 많이 나누는 것 보다, 반드시 '성경과 해석에 훈련된 자'가 그 모임을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회가 여건이 된다면, 종교개혁사, 혹은 칼빈주의적 성경관 등에 대해서, 신앙강좌를 자주 연다든지, 그리고 나서는 바른 성경관 정립을 위한 전교인 중심의 공청회를 가지는 것도 바람직 하리라고 본다. 또 하나, 경건 서적이나, 신학서

적 - 가능하면, 성경관과 주제를 맞추어서, 등을 읽고 독서 토론회를 가짐도 바람직 하리라고 믿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교회에 실제 적용하는가? 하는 것은 교회실정에 적합한 방법모색과 함께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sup>90)</sup>

---

90) 예) '시상제도를 아주 멋지게 하는 방법', '토론회 내용을 인물사진과 함께 책으로 내는 방법' 등..

##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대로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의지는 ‘오직 성경으로’ (*Sola - Scriptura*) 에 기초해 있었다. 그들의 이같은 이해는 오랜기간 동안 부패한 로마교제도와 교황에 대한 반발이었고, 하나님 절대주권을 높이고 성경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지의 표상이었다. 그것은 근본주의에서 말하는 (*Scriptura - Sola*)가 아니었다. 성경은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는 진리이고 모든 개인의 규범이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성경문자나 문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이다. 성경의 문자나, 문서는 건전한 방법으로 비평을 가하므로 그 속에 가려진 풍성한 뜻을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문자와 인간적 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므로 이 문헌들이 사본 상에 나타날 수 있는 역사적이고 문서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91)</sup>

개혁의 현장에 직접 뛰어든 루터나, 츠빙글리나, 사보나롤라 그리고 칼빈, 그들은 탁상공론식의 개혁가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탕으로 당대의 절대권력이었던 교황과 대항하여 그들의 잘못을 과감하게 지적하였던 것이다. 루터가 그의 대적자들을 피하여 숨은 바르트부르트에서 성경을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통하여,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하였던 츠빙글리가 글래루스 시에서 민중들과 10년간 목회하면서 원문에 충실한 강해식 설교를 함을 통하여, 그리고 스트라스버거와 제네바에서 성경을 기초로 ‘기독교강요’를 저술하였던 칼빈. 그들이 종교개혁의 선봉자로 나서게 되었던 원동력이 바로 그것이었다. 성경에 돌아와서 진지하게 살펴보면, 인간의 죄인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그들은 깨달았고 당시의 문제를 바로 직시할수 있었고, 교황도 하나님의 심판대앞에 서야 할 죄인인 것과 절대

91) G. E. Ladd, 「신약과 비평」 김만우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0), 7-20.

자 하나님과 그의 계시된 '성경만이' 모든 것의 표준인 것을 알게 되었다.

칼빈주의적 전통을 따르는 오늘의 개혁신교회는 하나님 절대주권사상과 함께 성경의 권위를 높이며, 오직 성경으로의 믿음과 삶의 실행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성경'의 표준에 비추어서 개혁하려는 개혁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성경만을' 고집하여 성령의 다양한 감동을 상실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성경의 문자나 문서를 소홀히 취급해서도 안될 것이다. 계시는 기록된 성경의 문자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해진다. 문자는 그것을 읽는 독자에게 매개체가 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진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자를 통해 계시로서 나아오신다.

보다 중요한 것은 칼빈도 성경의 영감성을 '받아쓰기(dictation)'로 이해했지만 그러나 기계적이라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매이지 않아서 문서적 비평을 가했던 것 처럼, 문자라는 의문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의미에 충실해야 하고 기록된 문자를 통해 계시되는 성령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데 있다.<sup>92)</sup>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문서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문서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와 사상이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의지와 성경관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와의 적용에서 참된 교회의 표상과 개혁의 의지는 무엇이며, 과연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대형화 되어져가고, 인본주의화 되어져가는 세상 물질 속에서 교회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는 오히려 실추 되어져가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구속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大勢)를 주관하시며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던 종교개혁가들 처럼, 말씀에 비추어보아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92) 김동춘, 「개혁주의 자료집」, 259-260.

## 참고 도서

- 김동춘 편집. 「개혁주의 자료집」 부산: 개혁주의 자료실 1991.
- 김성환.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서울: 엠마오 1975.
-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9.
- 박종철. 「구속사적 성경해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 박형용. 「신약성경신학」 서울: 합동신학교 1991.
- 서철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서울: 엠마오 1987.
- 이근삼. 「칼빈주의 특성과 강조점」 서울: 엠마오 1989.
- 이상규. 「교회사 연구의 제문제」 부산: 고신대학 1992.
- 이종성. 「칼빈의 기독교 강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신대출판부 1984.
- 최 훈. 「성경의 권위」 서울: 성광문화사 1977.
- 홍반식 외. 「개혁신앙의 원리와 실제」 서울: 엠마오 1987.
- A. B. Du Toit.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 권성수 역. 서울: 엠마오 1988.
- Abraham Kuyper. 「Calvinism」 박영남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71.
- David N. Steele, Curtis C. Thomas 공저. 「칼빈주의 5대 강령」.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D. Stuart, G. D. Fee. 「Old and New Testament Exegesis」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 G. E. Ladd. 「The New Testament and Criticism」 김만우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0.
-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서울: 성광출판사 1990.
-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요약」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Religion」 John T. McNei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John Murry,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나용화 역. 서울: 예수 교문서선교회 1976.

Louis Berkhof,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L. Berkhof,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윤종호, 송종섭 역. 서울: 개혁 주의신행협회 1990.

Lewis W. Spitz, 「종교 개혁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New Dictionary of Theology」 Sinclair B. Ferguson / David F. Wright 편집. USA: Inter-Varsity Press 1988.

Norman L. Geiseler, 「Philosophy of Religion」 위거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0.

Philip Schaff, 「신조학」 박일민 편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R. Bultmann 외 7인, 「현대 역사적 예수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R. Tudur Jones, 「기독교개혁사」 김재영 역. 서울: 나침반 1990.

Sidney Greidanus, 「SOLA SCRIPTURA」. Wedge publishing Foundation 1978.

Sidney M. Houghton, 「기독교교회사」 정중은 역. 서울: 나침반 1988.

Tony Lane, 「기독교사상사」 김응국 역. 서울: 나침반 1988.

William J. Bouwsma, 「칼 빈」 이양호, 박종숙 역. 서울: 나단 1991.

William R. Cannon,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이승희, “복음과 율법에 대한 M. Luther 와 J. Calvin 의 이해 연구”, 고신대학 신학 대학원, 1988.

채영삼, “종교개혁적 발견의 근대적 의의”,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1990.

이상규, “즈빙글리와 스위스에서 의 개혁운동” (월간 고신) 1992년 1, 3, 4월호.

이상규, “칼빈과 제네바의 종교개혁” (월간 고신) 1992년 5, 7-12, 1993년 2월호.

이상규, "루터와 독일에서의 개혁운동" (월간 고신) 1991년 6-11월호.

이상규,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월간 고신) 1991년 3월호.

이상규, "성직자의 부패가 원인이 된 개혁" (월간 고신) 1991년 4월호.

「목회와 신학」, 두란노 1991년 4월호.